

## 제2권

### 2장

“진정하십시오! 부탁하건데, 부디 저주받은 내 머리 앞에 증오심을 토해내기 전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겪는 이 정도의 고통으로는 부족해서, 나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 작정이요? 삶은, 비록 고뇌 덩어리라고 해도 내겐 소중한 것이요. 그러니 난 삶을 지킬 것이요.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나를 당신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나는 당신보다 키가 크고, 관절이 훨씬 더 유연하오. 하지만 당신과 대적할 마음은 없소.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니 당신이 내게 빚진 책임만 다해준다면, 나의 본래 주인이자 왕인 당신 앞에선 부드럽고 온순해지겠소. 아아, 프랑켄슈타인, 다른 사람에겐 공정한 태도를 보이면서 어찌 나만을 짓밟으려 하는 거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내게 당신의 정의와 자비와 애정을 쏟아야 할 텐데 말이오. 명심하십시오. 난 당신의 피조물이란 걸. 나는 당신의 아담이건만 아무런 죄도 없이 당신에 의해 기쁨에서 쫓겨나 타락한 천사가 되었소. 어디를 보든 행복뿐인데, 나만 혼자 영원히 그 행복에서 쫓겨났소. 나는 인정 많고 선량했건만, 불행이 나를 악마로 만들었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다시 고결해지겠소.”

“씩 꺼져! 네 놈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네 농과 나 사이에 공유할 만한 것은 있을 수 없어. 우린 적이야. 썩 꺼져. 아니면 누구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힘을 겨뤄볼까.”

“어떻게 당신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아무리 애원해도 당신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당신의 친절과 동정을 애원하는 피조물에게 호의적인 눈길 한번 주지 않겠다는 것이요? 프랑켄슈타인, 부디 내 말을 믿으시오. 나도 전에는 선량하게 살았소. 내 영혼은 사랑과 인간애로 빛났소.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 가련하게 혼자가 아니요? 내 창조자인 당신까지도 나를 혐오하는데 내게 빚진 게 없는 당신의 주변 사람들한테야 내가 무얼 기대할 수 있겠소? 그들은 나를 경멸하고 증오하오. 내겐 인적 없는 산과 황량한 빙하만이 피난처요. 나는 이곳에서 많은 날들을 방랑했소. 내게 유일하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얼음 동굴이야말로 내 집이오. 그곳에서만큼은 나를 싫어하는 인간을 볼 일이 없소. 난 저 황량한 하늘을 반기오. 그건 저 하늘이 당신과 같은 인간들보다 내게 더 친절하기 때문이오. 많은 인간들이 내 존재를 알았다면 당신처럼 나를 경멸하며 해치려고 무기를 들었을 거요. 나를 그토록 증오하는 인간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나는 적들과 손잡지는 않겠소. 내가 비참하면 적들도 내 비참함을 느끼게 될 거요. 그렇지만, 내 비참함을 보상해주는 일과 당신에겐 너무나 참담함으로 남을 뿐인 불행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 삼켜버릴 불행에서 모두를 구하는 일은 당신의 손에 달렸소. 부디 불쌍히 여겨 나를 경멸하지 마시오. 그리고 내 얘기를 꼭 들어주시오. 일단 내 얘기가 들어보고 나서 내가 어떤 놈인지 판단하십시오. 그런 후에 나를 버리든 동정하든 하시오. 우선은 내 얘기를 들어보란 말이오. 인간의 법에 의하면, 아무리 잔인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란도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받을 권리가 있을 거요. 그러니 프랑켄슈타인, 부디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당신은 나를 살인자라 비난하고 있소. 그러면서도 스스로 만족할 만한 양심을 가진 당신 역시 자신의 피조물을 죽이려 하고 있소. 아, 인간의 영원불멸한 정의를 찬미할지어다! 날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니, 부디 내 말을 들어주시오. 내 얘기를 다 듣고도 당신 손으로 만

든 피조물을 죽일 수 있으면, 죽일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하시오.”

“왜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느냐? 왜 내가 불행의 근원이자 창조자라는 걸 상기시키느냐? 혐오스런 악마야, 네 놈이 처음 빛을 본 그날이 저주스럽다! (나 자신도 저주스럽지만) 네 놈을 만든 두 손이 저주스럽다! 네 놈 때문에 난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해졌어. 네 놈 때문에 나는 내가 네 놈 앞에 떳떳한지 떳떳하지 못한지 생각할 힘마저 잃었어. 어서 꺼져! 역겨운 그 물골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나의 창조자여, 그리 해주겠소.”

그가 말문을 열며, 자신의 혐오스런 양손으로 내 눈앞을 가렸다. 순간 나는 거칠게 그 두 손을 내쳤다.

“그렇게 눈을 가리면 내 혐오스런 얼굴이 안 보일 거 아니오. 그래도 내 말소리는 들릴 테니, 부디 내게 동정을 베푸시오. 한때 지냈던 선한 마음으로 부탁하오. 내 얘기를 들어주시오. 내 이야기는 길고 기이하게 들릴 것이오. 그런 이야기를 듣기에, 예민한 당신으로서는 이 추운 곳은 어울리지 않소. 산 위 오두막으로 갑시다. 아직 해가 하늘 높이 떠 있으니, 해가 저 눈 덮인 절벽 너머로 기울어 모습을 감추고 다른 세계를 비추기 전에, 당신은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요, 이제 문제는 당신에게 달렸소. 내가 인간 곁을 영원히 떠나 남을 해치는 일 없이 살게 될지, 아니면 당신 주변 사람들을 응징하고 당신의 파멸을 빠르게 재촉할지 말이오.”

\*\*\*

## 9장

그놈은 말을 마치고 대답을 기대하는 듯 나를 뵈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해 그놈이 한 제안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내게, 서로 공감하는 바를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자를 만들어달라는 거요. 이 일은 당신만이 할 수 있소. 그리고 나는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으니 당신이 거절해서는 안 되오.”

그놈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듣고 난 순간, 그놈이 오두막집 사람들과 평화롭게 생활하던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내 가슴속에서 사라졌던 분노가 다시 불타올랐다. 놈의 그 따위 말에 나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더는 억누를 수 없었다.

“난 그제안을 거절한다.”

나는 대답했다.

“아무리 날 괴롭혀도 네 뜻을 들어줄 수 없어. 넌 나를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 순 있겠지만, 비열한 사람으로는 만들지 못할 거다. 함께 세상을 황폐화시킬 사악한 마음을 지닌 너 같은 괴물을 또 하나 만들라는 말이나! 그따위 부탁일랑 집어치워! 내 대답은 이렇다. 네 놈이 아무리 날 괴롭힌다 해도 난 절대로 응하지 않겠어.”

“당신의 생각은 틀렸소.”

그 악마가 대답했다.

“난 당신을 협박하기보다는 설득하고 싶은 거요. 내가 악한 건 내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오. 모든 인간들은 나를 피하고 증오하잖소? 나를 창조한 자인 당신은 나를 갈가리 찢어 없애

버리고 싶어 하고 말ियो. 그걸 잊지 말고 말해보시오. 나를 동정하지 않는 인간을 내가 동정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소? 당신이 나를 저 빙하 틈으로 밀어 떨어뜨려 내 몸을, 당신 손으로 만든 작품을 파괴 시킨다고 해도, 당신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요. 나를 경멸하는 인간을 내가 어찌 존경할 수 있겠소? 어디 그런 인간을 나와 정을 나누며 살 수 있게 해보겠소? 그러면, 나는 그 인간을 해치기는커녕 나를 받아준 것이 고마워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은혜를 베풀 거요.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소. 인간의 감각은 우리가 화합하는 데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요. 더욱이 나는 굴복해서 비참한 노예가 될 생각은 없소. 나는 내가 입은 상처에 복수로 답할 거요, 인간에게 사랑을 일깨워 줄 수 없다면 두려움을 가르쳐주겠소. 누구보다도 불구대천의 원수인 당신에게 공포를 가르쳐주겠소. 난 내 창조자를 영원히 증오하기로 맹세했으니 말ियो. 조심하시오. 나는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요. 당신의 마음을 황폐화시켜,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요.”

이런 말을 하는 동안 그는 악마 같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차마 인간으로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의 얼굴은 너무나 섬뜩하게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을 이었다.

“이성적으로 설득해보려 했소만, 이처럼 울분이 내 마음을 해치고 말았소. 그건 나의 복받치는 울분이 당신 때문이라는 걸 당신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요. 누구든 내게 선행을 보인다면, 나는 백 배 천 배로 그 은혜를 갚을 거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인간들과 화해할 생각이니 말ियो! 그러나 지금 내가 꾸는 그 행복한 꿈은 이루어질 수 없소. 그러니 내 요구는 정당한 것이요. 그리고 그리 무리한 부탁은 아닐 것이요. 여자지만 나처럼 흉측한 존재를 만들어주시오. 그것으로 내가 얻을 만족은 작지만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전부고 그것이면 나로서는 충분하오. 물론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괴물들로서 살아갈 것이요.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아끼고 사랑할 것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남을 해치지도 않을 테도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 불행도 알지 못할 것이요. 오! 창조주여,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시오! 딱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오! 나도 내가 다른 존재의 마음에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광경을 보고 싶소.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시오!”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동의한 후에 다가올 결과를 생각하면 전율이 흘렀다. 그러나 괴물의 논조에는 정당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감정은 그가 섬세한 감수성의 소유자라는 증거였다. 창조주인 나는 힘이 닿는 한 그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선사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내 감정의 변화를 눈치챈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동의한다면, 당신이나 다른 인간이 다시는 우리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겠소. 남아메리카의 광활한 황야로 가겠소. 우리 음식은 사람과 다르오. 배를 채우기 위해 어린 양과 새끼 염소를 죽이지 않는단 말ियो. 도토리나 나무딸기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소. 내 동반자도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같은 음식으로 만족할 것이요. 마른 잎으로 침대를 만들고, 햇살은 인간을 비추듯 우리를 비추고 우리의 음식을 익어가게 할 것이요. 내가 제시하는 그림은 평화롭고 인간적이니, 이를 거절하는 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잔인한 행동이라고 당신도 느낄 것이요. 지금까지 동정심 하나 없었던 당신이지만 이제 그 눈에 연민이 보이는군요. 이 절호의 기회를 허락하여 간절한 내 소망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오.”